

이슈 판권



행인에게 뜨거운 물 부은 장애인 '실형'...法 "심신미약 아냐"

특수폭행에 절도행각 벌이고도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아무런 이유없이 길 가는 50대 여성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 붓고 잇따라 절도행각을 일삼은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

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고시텔 1층 앞 도로에서 행인 B씨(51·여)에게 썬씨 76.1도의 뜨거운 물을 들이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고시텔 주방에 있던 정수기에서 유

리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아무런 이유없이 건물 앞 도로에서 있던 B씨에게 들이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시텔에 침입해 잠겨 있지 않은 객실에서 노트북 1대를 훔치고, 올 2월에는 인천지법 1층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민원인이 잠겨 대기실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했다.

또 부천 한역 개찰구 앞에서 벤치에 앉아 졸고 있던 C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잇단 절도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름 기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월 평균 낙상환자 2만명 "빙판길 미끄러짐 조심해야"

소방청, 고령자 후유증 크고 사망원인 될 수 있어

소방청은 최근 3년간 119구급활동 분석한 결과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에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낙상환자 구급이송이 크게 증가한 다며 보행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낙상환자를 119구급차로 이송한 건은 65만 4405건으로 12월은 평균 1만98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낙상환자는 50세 이상 중장년층(67%)에 집중됐으며, 70대가 19%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고령자에게 발생한 낙상 후유증이 크며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계청에 의하면 질병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통계 중 추락·미끄러짐에 의한 사망이 자살, 교통사고에 이어 세 번째 비율을 차지했다.

소방청은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출 전 10분 정도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

어주기 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고 보폭은 평소보다 10~20% 줄여 종종걸음으로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박세훈 소방청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은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리해서 움직이면 골절약화, 신경손상 등 2차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년만에 철거되는 전주한 친필 현판 전주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논개 생가지를 지나 오른쪽에 위치한 연못의 정자 현판이 20년만에 철거됐다.

"담배 피우지마라" 고교생 훈계했다 보복 당한 사연

30대 男, 커뮤니티에 글 올려... "진심 어린 사과 받고파"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훈계를 했다가 지속적으로 보복을 당했다는 글이 최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게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북 전주에 사는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고등학생 무리의 주거침입·재물손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10일 오후에 발생했다.

작성자는 아내와 두 살배기 첫째 딸, 생후 3개월 된 둘째 딸과 함께 다세대 주택 2층에 산다고 했다.

한 여름이었기 때문에 활짝 열려둔 거실쪽 창문을 통해 갑자기 담배 냄새가 들어왔고, 작성자의

아내는 창문 밖을 내려다 봤다.

1층 주차장에서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4명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 아내는 자고 있던 작성자를 깨웠다.

작성자는 학생들에게 담배피우지 말고 가라고 훈계를 했고 학생들은 담배를 땅바닥에 버린 뒤 자리를 떴다.

작성자의 훈계는 추후 학생들의 보복으로 돌아왔다. 작성자는 "이틀 뒤부터 누군가 집 초인종을 반복해 눌렀고 택배기사인줄 알고 아내가 문을 열었지만 옷으며 도망가는 학생들이었다"고 했다.

이후에도 학생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고 작성자는 112에 신고를 했다. 이후 학생들의 보복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1층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작성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작성자는 "사건 당일 훈계를 들은 학생들은 2시간 만에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아와 담배를 피웠다"며 "불씨가 꺼지지 않은 풍초를 거실 창문에 던졌고 심지어 화단에 있는 돌을 창문에 던지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의 행동에 격분한 작성자는 재차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최근 검찰에서 청소년 범죄예방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작성자는 "우리는 큰 것을 바라진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진심어린 반성을 듣고 싶을 뿐이다"면서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도 집 앞에서 똑같이 모여 담배를 피고 아무 일 없듯이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여수서 청산가리 10배 독성 가진 '파란고리문어' 또 발견



3일 오전 10시쯤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앞바다에서 통발 작업을 하던 박모씨(58·여)가 통발 속에서 10cm크기의 특이한 문어를 발견했다.

박씨는 "얼마전 맹독성의 색깔이 특이한 문어가 여수에서 잡혔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자녀에게 들었다"며 "사진을 찍어 자녀에게 보냈더니 위험한 문어라고 답을 보내와 수산 당국에 연구를 위해 기증했다"

여수 앞 바다에서 맹독성의 파란고리문어가 잇따라 발견돼 주

의가 요구된다.

3일 오전 10시쯤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앞바다에서 통발 작업을 하던 박모씨(58·여)가 통발 속에 들어있던 10cm크기의 특이한 문어를 발견했다.

박씨는 "얼마전 맹독성의 색깔이 특이한 문어가 여수에서 잡혔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자녀에게 들었다"며 "사진을 찍어 자녀에게 보냈더니 위험한 문어라고 답을 보내와 수산 당국에 연구를 위해 기증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전 8시30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리 소유항

동쪽 3.3km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던 낚시꾼에게 '파란고리문어' 1마리가 잡혔다.

'파란고리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해역 등 따뜻한 바다에서 서식하며, 이번 여수 앞바다에서 잡힌 파란고리문어는 길이 7cm, 무게는 약 10g으로 '테르로도독신'이라는 청산가리 10배 수준의 무서운 독을 지니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독성을 지닌 이열대성 생물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태치료발견, 자태치료 중인 민척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